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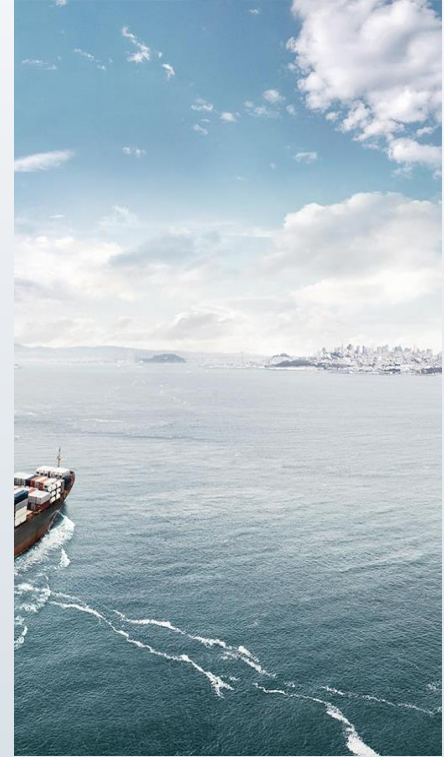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282

Updated January 21, 2020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7
- BC Sales Report	
Tankers	11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5
Key Indicators	18
STL News & Information	20
Contact Information	21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ISSUE & TREND

1. 中 '춘절 효과' 끝난 해운업계 "2월까지 운임 20%떨어진다"

중국 '춘절 효과'로 지난해 말부터 가파르게 오르던 해운 운임이 최근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해운사들이 고심하고 있다.

선사들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를 빼는 임시 결항을 단행하거나 일괄운임인상(GRI) 등의 방법으로 수익성 방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춘절 효과가 끝난데다 겨울철 비수기까지 겹쳐 다음달까지 운임이 20%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2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나타내는 SCFI는 17일 기준 990.68 포인트로 전주 대비 1.2% 떨어지며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해운 운임은 지난해 말 글로벌 선사들의 선복량 조정과 중국 춘절에 따른 선수요 효과가 맞물리면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꾸준히 상승해왔다.

여기에 올해 1월 황산화물 배출 규제 시행으로 저유황유 할증료(LSS)가 반영돼 지난 3일에는 5년(2015년 2월 27일) 만에 1000 포인트(1022.72)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예년 보다 2주 가량 앞당겨진 '춘절 효과'가 빠르게 종료되면서 해운 운임은 하락세로 전환됐다. 중국 춘절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다. 해운사들은 중국 연휴를 앞두고 통상 밀어내기 수요가 발생하면서 운임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달 3일 TEU(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당 1124달러였던 아시아~유럽 항로 스팟 운임은 지난 10일 1058달러로, 17일엔 1010달러로 2주 연속 하락했다. 2주 새 10.1%가 떨어진 셈이다.

미주 서안은 3일 FEU(4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당 1636달러에서 17일 현재 1562달러로 4.5% 하락했다. 미주 동안은 지난달 말부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시황 호조 보다는 저유황유 적용에 따른 유류할증료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올해 대형 화주들과의 장기계약을 앞둔 선사들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임시 결항, 선복 조정 등으로 운임 하락 방어에 나서고 있다. 선사들은 매년 3~4월경 대형 화주들과 운송계약(SC)을 체결하는 데 SC에선 환율, 유가, 원자재, 과거 운임 등이 고려된다.

I . ISSUE & TREND

특히 1~2 월 겨울철 비수기엔 수요 감소가 뚜렷해지는 만큼 임시 결항(blank sailings)으로 운임 하락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선사인 MSC 는 오는 3 월까지 SWAN 서비스 등 아시아~유럽 노선별 임시 결항을 실시한다. 오션 얼라이언스와 현대상선이 소속된 디 얼라이언스의 경우 2 월 한 달간 미주 32 개 노선을 대상으로 임시 결항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사들의 노력에도 해운 시황은 수요 저조로 2 월 말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해운 운임 지수는 수요 감소와 유류할증료 효과 등이 맞물려 현재 1000 포인트에서 800 포인트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 올해 부산항 개발에 6,800 억 투입..."최첨단 물류 허브항만 조성"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와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부산항 개발에 6,772 억원을 투입한다고 20 일 밝혔다. 사업주체별로는 국비 2,374 억원, 부산항만공사 3,298 억원, 민간자본 1,100 억원이다.

부산항건설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부산항 개발사업으로는 먼저 대형선박의 통항 안정성 확보를 위한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토석 245 만m³)를 상반기에 완료한다. 또 2022 년 신항 서'컨' 부두 개장과 연계해 항로의 적정수심 확보를 위한 개발(2 단계) 준설을 지속 추진하고 다양한 물류수송체계 확충을 위한 임항교통시설(철도 4.9KM, 임항도로 2.4KM) 실시설계와 진입도로(2.2KM) 개설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남'컨' 배후단지(144 만m²)와 민간투자사업인 남'컨' 부두(3 선석)도 2022 년 정상적인 운영을 목표로 진행한다.

국가어항인 가덕도 천성항(방파제 360M, 물양장 320M 등)의 개발을 연내 완료해 미래 지향적인 종합 기능 어항으로 수산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적인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신항 재해방지시설(방재언덕) 설치를 연내 착공하고 오륙도·조도방파제 보강 및 감천항·다대포항 방파제, 신선대투기장 호안 태풍피해 복구도 지속 추진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환경 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I . ISSUE & TREND

부산항만공사는 서'컨' 부두 5 선석(3 선석 22 년 개장, 2 선석 26 년 개장) 축조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우선 개장 대상인 3 선석은 올해 상반기에 상부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다. 또 북항 내 대기오염 관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비의 40%를 국비로 지원받아 감만·신선대부두를 대상으로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를 연내 착공한다.

이와 함께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북항 재개발(1 단계) 사업지로의 접근성 향상과 교통 지·정체 해소를 위해 지난해 착공한 지하차도 개설(1.87KM)을 본격 추진하고 부산항만공사는 2022 년 북항 재개발(1 단계)의 차질없는 준공을 위해 보행데크, 연결교량, 경관수로호안 등 관련 기반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두 기관에서 함께 추진 중인 남'컨' 배후단지(144 만㎡)와 민간투자사업인 남'컨'부두(3 선석)도 2022 년 정상적인 운영을 목표로 진행한다.

이철조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을 통해 친환경 스마트항만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 中 공급과잉·원자재 값 ↑ ...철강업계 올해도 '험난'

철강업계는 작년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철강재가 쓰이는 전방 산업의 업황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브라질 호주 등 주요 철광석 생산국의 자연재해로 원재료 값까지 치솟았다. 올해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 철강 수요는 아직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 철강업체의 공급도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업체들은 부진 탈출을 위해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방 업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중국 철강 생산량이 변수

작년 1~9 월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7 억 4681 만 T으로 전년 대비 8.0% 늘었다. 중국 업체들의 철강 생산은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가 과거보다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철강 가격은 2018 년을 고점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열연 가격은 2018 년 1 월 최고가 대비 현재 약 14% 하락했다.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철광석 가격은 작년 1 월부터 꾸준히 올라 7 월에는 T 당 120 달러 선을 넘어서며 5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8 월 이후 조금씩 하락했지만 여전히 T 당 90 달러 선으로 예년 가격을 웃돌고 있다. 한 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I . ISSUE & TREND

철강업의 전방산업은 모두 경기순환 업종으로 단기에 업황이 변하지 않는 산업"이라며 "국내 철강재 수요는 2020 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의 작년 4 분기 영업이익은 1 조원을 밑돈 것으로 추정된다. 포스코의 분기 영업이익이 2017 년 4 분기 이후 9 분기 만에 1 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 분기와 2 분기에도 영업이익 1 조원대를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철강협회(WSA)는 올해 세계 철강 수요가 18 억 900 만 T 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예상 성장률이 3.9%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국내 시장도 0.4%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인상 나선 철강사들

철강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판매가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철강업체들은 선박에 쓰이는 후판,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판 등 철강재별로 전방업체들과 1 년에 두 번 이상 협상한다. 철강사들은 오른 철광석 값을 반영해 철강 값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전방업체들은 아직 업황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결 내지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업체들의 가격 인상 의지가 시장에 얼마나 반영될지에 따라 올해 실적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신흥국 철강 가격이 지속된다면 실적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다른 투자증권 연구원은 "베트남 열연강판 수입단가는 작년 10 월 T 당 400 달러까지 하락했지만 지난주 500 달러를 넘어섰다"며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실물 수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철강협회 신년회에서 "올해도 철강산업의 경영 여건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첨단소재 등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I . ISSUE & TREND

4. IMF 올 세계성장률 3.4→3.3%로 또 낮춰..."바닥쳤지만 회복부진"

글로벌 경제가 바닥을 치고 반등 흐름을 타고 있지만 회복세는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IMF는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로 3.3%를 제시했다. 석 달 전에 제시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IMF는 2020년 성장 전망치를 3.6%(지난해 4월), 3.5%(지난해 7월), 3.4%(지난해 10월) 등으로 꾸준히 하향 조정했다. IMF는 내년도 성장 전망치도 3.6%에서 3.4%로 0.2%포인트 내려 잡았다. 글로벌 성장세가 2018년 3.6%에서 지난해 2.9%로 꺾였다가 올해부터 반등을 시도하겠지만, 회복 강도에선 갈수록 부정적인 전망이 강해지는 셈이다. 보고서에는 '잠정적인 안정화, 부진한 회복'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우려를 동시에 반영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전망에는 약간의 희망이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성장세는 여전히 부진하다"면서 "우리는 아직 터닝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타 고피나스 수석이코노미스트도 "글로벌 성장세가 안정화하는 잠정적인 신호가 있지만 경제전망은 부진하고 더욱 강력한 다자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는 2.1%에서 2.0%로 0.1%포인트 내려갔다. 내년 전망치는 기존 1.7%로 유지됐다. 2018년 2.9%에서 지난해 2.3%, 올해 2.0%로 성장세가 지속해서 둔화하고 내년엔 2%를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로존의 올해 성장전망치도 1.4%에서 1.3%로 0.1%포인트 낮췄고, 일본은 0.5%에서 0.7%로 0.2%포인트 높였다. 선진경제권(-0.1%포인트)보다 신흥개도국(-0.2%포인트)의 성장전망치를 더 큰 폭으로 낮췄다. 중국의 올해 성장전망치는 6.0%로 석 달 전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6.1%에 이어 올해도 중국 정부의 '6.0~6.5%' 성장목표를 간신히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브라질은 2.0%에서 2.2%로 0.2%포인트 높이고, 멕시코는 1.3%에서 1.0%로 0.3%포인트 낮췄다. 러시아에 대해선 기존과 같은 1.9% 전망치를 유지했다.

문제는 인도다. 인도의 올해 성장전망치를 7.0%에서 5.8%로 무려 1.2%포인트 깎았다. 인도 경제는 지난해부터 소비 위축, 유동성 악화, 투자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I . ISSUE & TREND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IMF는 "인도를 중심으로 일부 신흥시장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반영해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조업 및 무역 활동이 바닥에서 벗어나는 신호가 있는 데다, 각국 통화 당국이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미·중 1 단계 무역협상이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특히 통화완화 정책이 없었다면, 지난해와 올해 성장세는 각각 0.5%포인트 낮아졌을 것으로 IMF는 분석했다. 완화적인 통화·재정 정책으로 성장 효과를 누린 국가로는 미국과 중국, 한국을 꼽았다. 무역갈등이 올해 글로벌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0.8%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낮춰 잡았다. 미·중이 최근 1 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무역전쟁이 다소 완화된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피나스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긴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최근 들어 줄어든 정책적 불확실성은 다시 커질 것"이라며 "조금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이란 충돌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 관세 갈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등을 꼽았다.

정책적 오류가 아직 미약한 글로벌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수 있다면서 다자간 정책적 협조,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을 강조했다.

전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2.9%로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춰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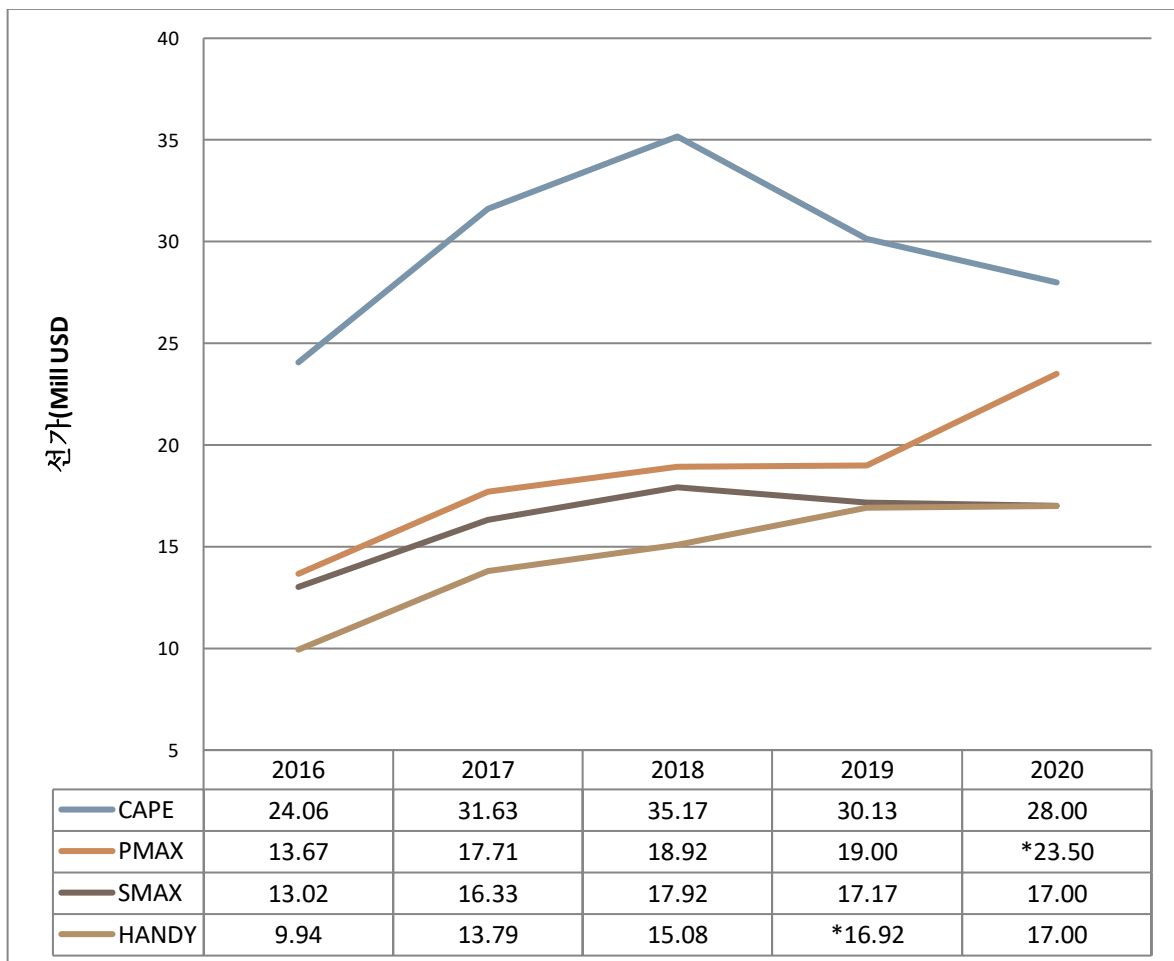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6	2017	2018	2019	2020
Capesize 180K	24.06	31.63	35.17	30.13	28.00
	-24.99%	31.43%	11.20%	-14.34%	-7.05%
Kamsarmax 82K	13.67	17.71	18.92	19.00	*23.50
*'19년까지는 76K 기준	-19.80%	29.57%	6.82%	0.42%	23.68%
Supramax 58K	13.02	16.33	17.92	17.17	17.00
	-16.91%	25.44%	9.69%	-4.20%	-0.97%
Handysize 37K	9.94	13.79	15.08	*16.92	17.00
*'18년까지는 32K 기준	-23.32%	38.78%	9.37%	12.18%	0.49%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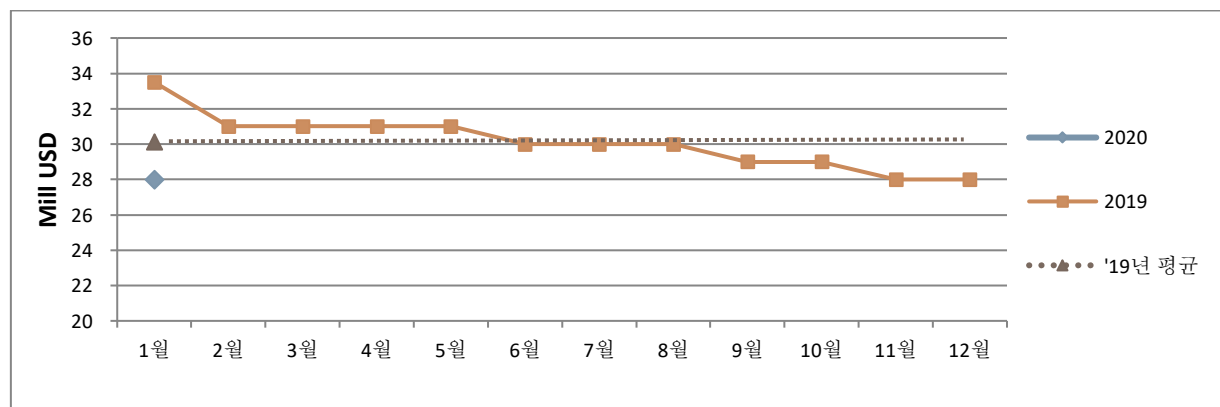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2020	CAPE 180K	선가	28.00					28.00
		전월대비	0.0%					-
		전년대비	-16.4%					-7.1%
	KMAX 82K	선가	23.50					23.50
		전월대비	23.7%					-
		전년대비	23.7%					23.7%
	SMAX 58K	선가	17.00					17.00
		전월대비	0.0%					-
		전년대비	-5.6%					-1.0%
HNDY 37K	선가	17.00					17.00	
	전월대비	3.0%					-	
	전년대비	0.0%					0.5%	
2019	CAPE	33.50	31.00	31.00	31.00	31.00	30.00	30.13
	PMAX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SMAX	18.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17
	HANDY (37k)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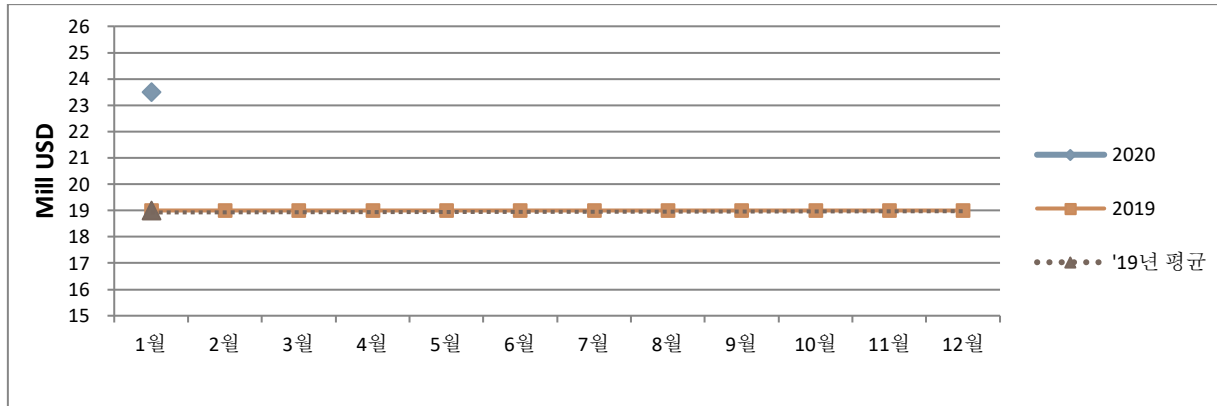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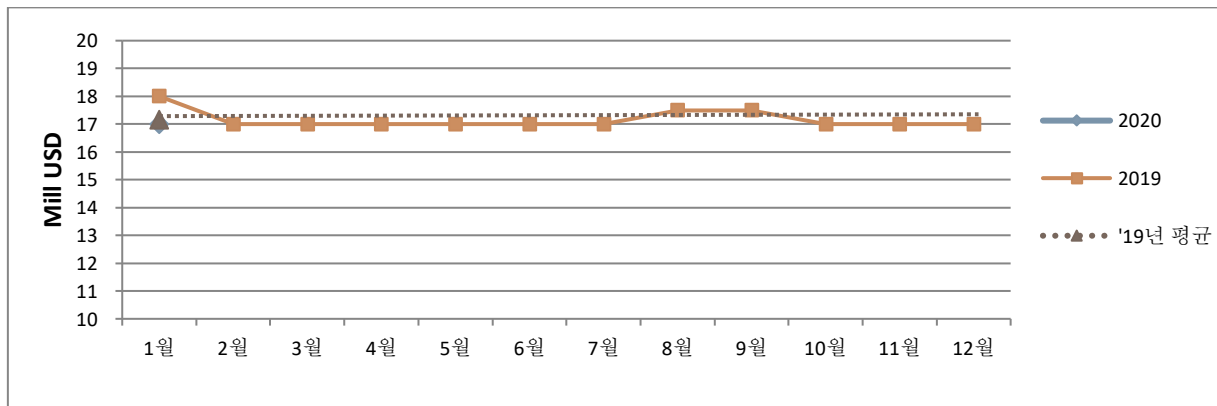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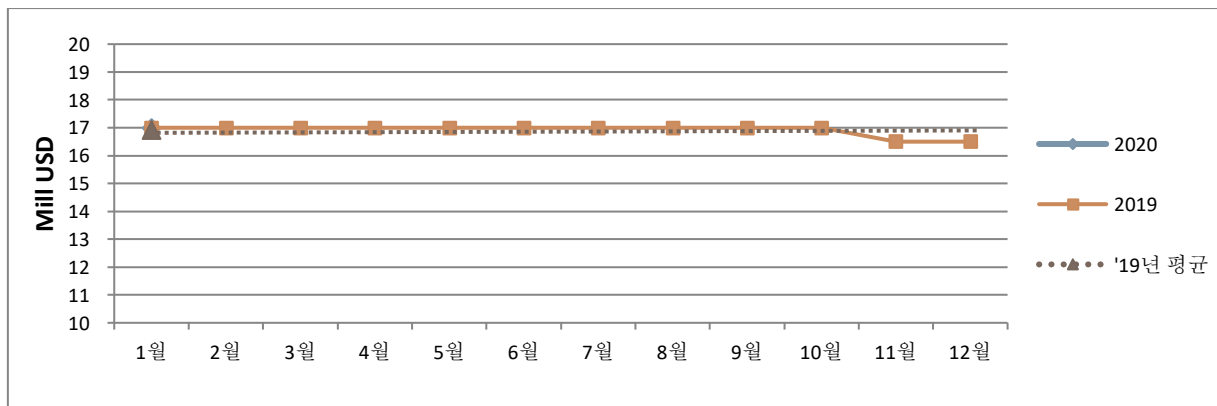
□ Kamsarmax *'19년까지는 76K 기준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OCEAN SAPPHIRE	93,029	2012	CHINA	B&W		13	Greek buyer, DD due
BC	SUNNY YOUNG	81,967	2011	KOREA	MAN		15.5	Greek buyer
BC	AFTERHOURS	74,456	2007	CHINA	B&W		9	Greek buyer (Niris)
BC	TR OMAHA	63,581	2014	CHINA	B&W	C 4x30t	18.2	On subs till 24th Jan, undisclosed buyers
BC	NOVA GORICA	53,100	2008	CHINA	B&W	C 4x35t	8	Vietnamese buyer
BC	VANESSA OLDENDORFF	38,165	2015	JAPAN	B&W	C 4x30t	17.5	Greek buyer
BC	KS FLORA	35,678	2015	JAPAN	B&W	C 4x30t	rgn 15	European buyer, old sale (Dec '19), BWTS fitted
BC	BLUEWING	26,700	2002	CHINA	MAN	C 3x40t	3.3	Undisclosed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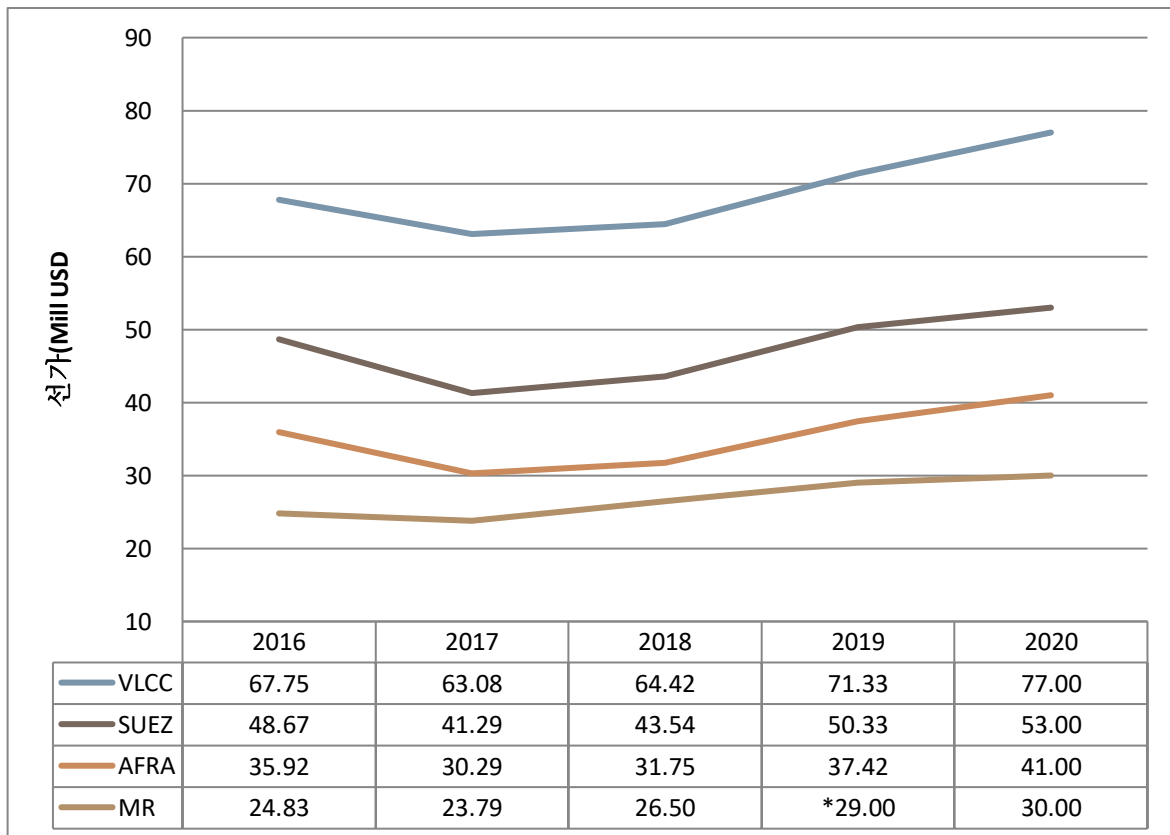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VLCC 310K	67.75	63.08	64.42	71.33	77.00
	-16.15%	-6.89%	2.11%	10.73%	7.94%
Suezmax 160K	48.67	41.29	43.54	50.33	53.00
	-18.34%	-15.15%	5.45%	15.60%	5.30%
Aframax 105K	35.92	30.29	31.75	37.42	41.00
	-21.24%	-15.66%	4.81%	17.85%	9.58%
MR 51K <small>*18년까지는 49K 기준</small>	24.83	23.79	26.50	*29.00	30.00
	-10.35%	-4.19%	11.38%	9.43%	3.45%
Chemical Tanker IMO II 13K	13.92	12.42	11.77	10.90	10.50
	10.45%	-10.78%	-5.20%	-7.43%	-3.63%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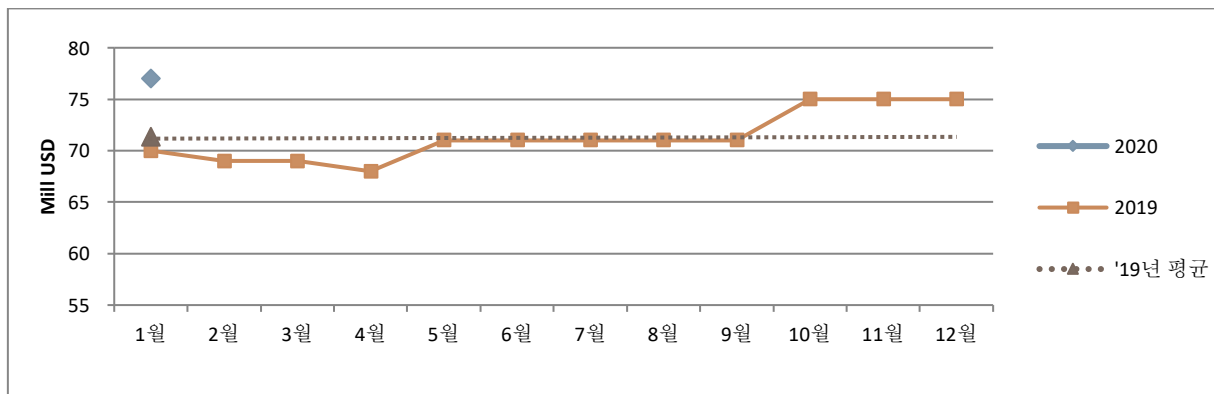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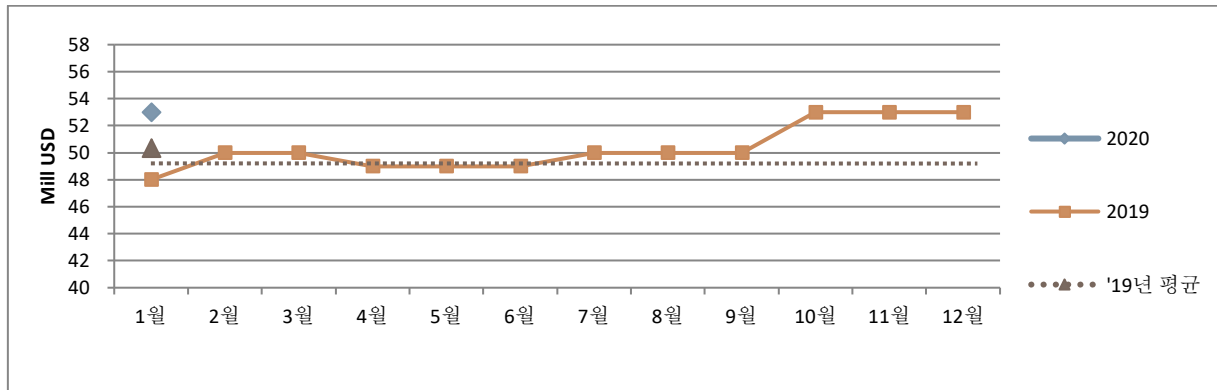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20	VLCC 310K	선가	77.00						77.00
		전월대비	2.7%						-
		전년대비	10.0%						7.9%
	SUEZ 160K	선가	53.00						53.00
		전월대비	0.0%						-
		전년대비	10.4%						5.3%
	AFRA 105K	선가	41.00						41.00
		전월대비	0.0%						-
		전년대비	17.1%						9.6%
	MR 51K	선가	30.00						30.00
		전월대비	0.0%						-
		전년대비	7.1%						3.4%
CHEM IMO2 13K	선가	10.50						10.50	
	전월대비	0.0%						-	
	전년대비	-4.5%						-3.6%	
2019	VLCC	70.00	69.00	69.00	68.00	71.00	71.00	71.33	
	SUEZ	48.00	50.00	50.00	49.00	49.00	49.00	50.33	
	AFRA	35.00	35.00	35.00	35.00	35.00	37.00	37.42	
	MR	28.00	28.00	28.00	28.00	28.00	29.00	29.00	
	CHEM	11.00	11.25	11.00	11.00	11.00	11.00	10.90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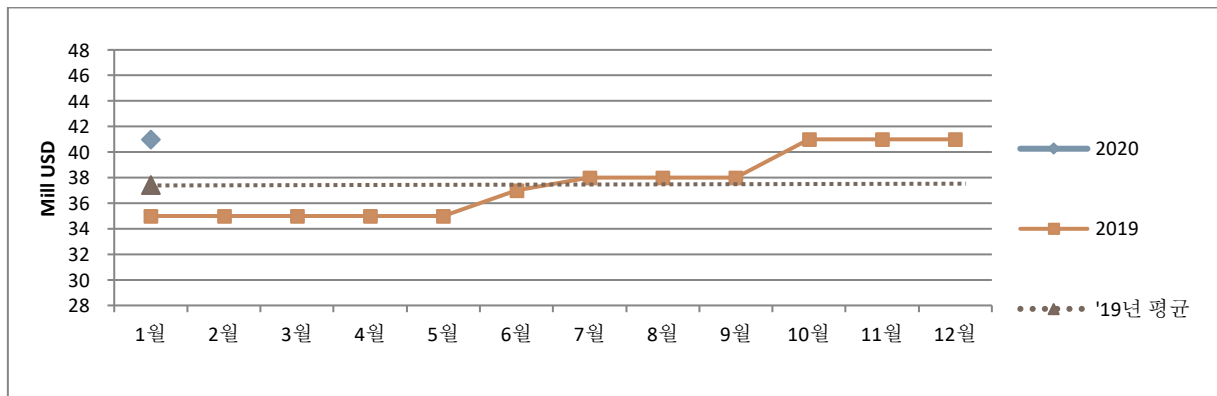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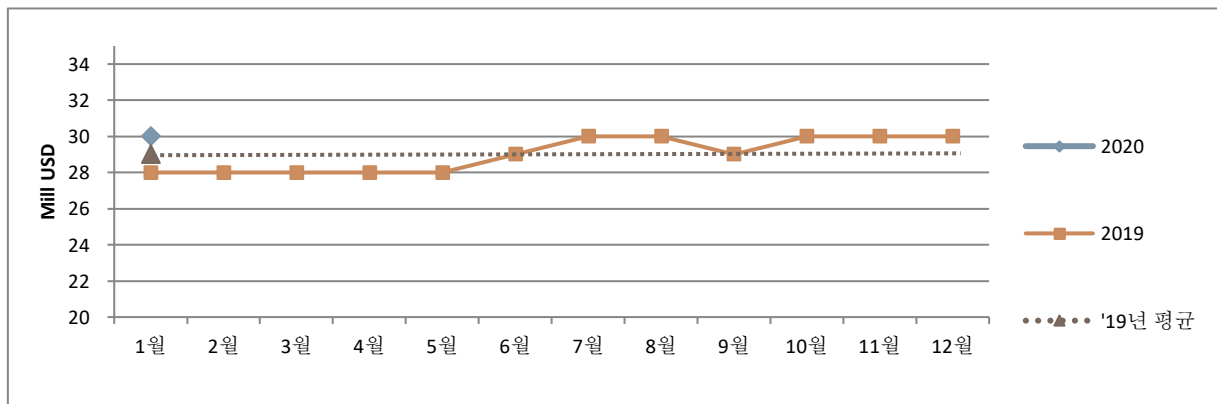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CHELSEA	300,000	2020	KOREA	MAN		106	Undisclosed buyer
TANKER	SCF ALTAI	159,167	2001	KOREA	B&W		17.75	Greek buyer, BWTS fitted
TANKER	RICH WIND	47,401	2009	JAPAN	B&W		16.8	Danish buyer (Dee4 Capital Partners)
TANKER	BRIZO	46,866	2004	JAPAN	B&W		9.9	UAE buyer (Marshal Shipping), old sale
OIL /CHEM	MOUNT KIBO	37,843	2010	KOREA	B&W	3	14.9	Cypriot buyer
OIL /CHEM	MOUNT EVEREST	37,817	2010	KOREA	B&W	3	14.9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IRENES WARWICK	67,680	2007	TAIWAN	WART	6039	TEU	16.0	Singapore buyer (Asiatic Lloyd Shipping), incl. 5Y TC
MPP	ZEA MAHAWELI	12,349	2010	CHINA	B&W	712	TEU	4.8	German buyer, Mpp/Heavyliifter
MPP	ZEA KELANI	12,325	2010	CHINA	B&W	712	TEU	4.8	
MPP	DANITA	6,405	2005	CHINA	MAK	336	TEU	4.75	Estonian buyers (AMISCO), Mpp/Heavylii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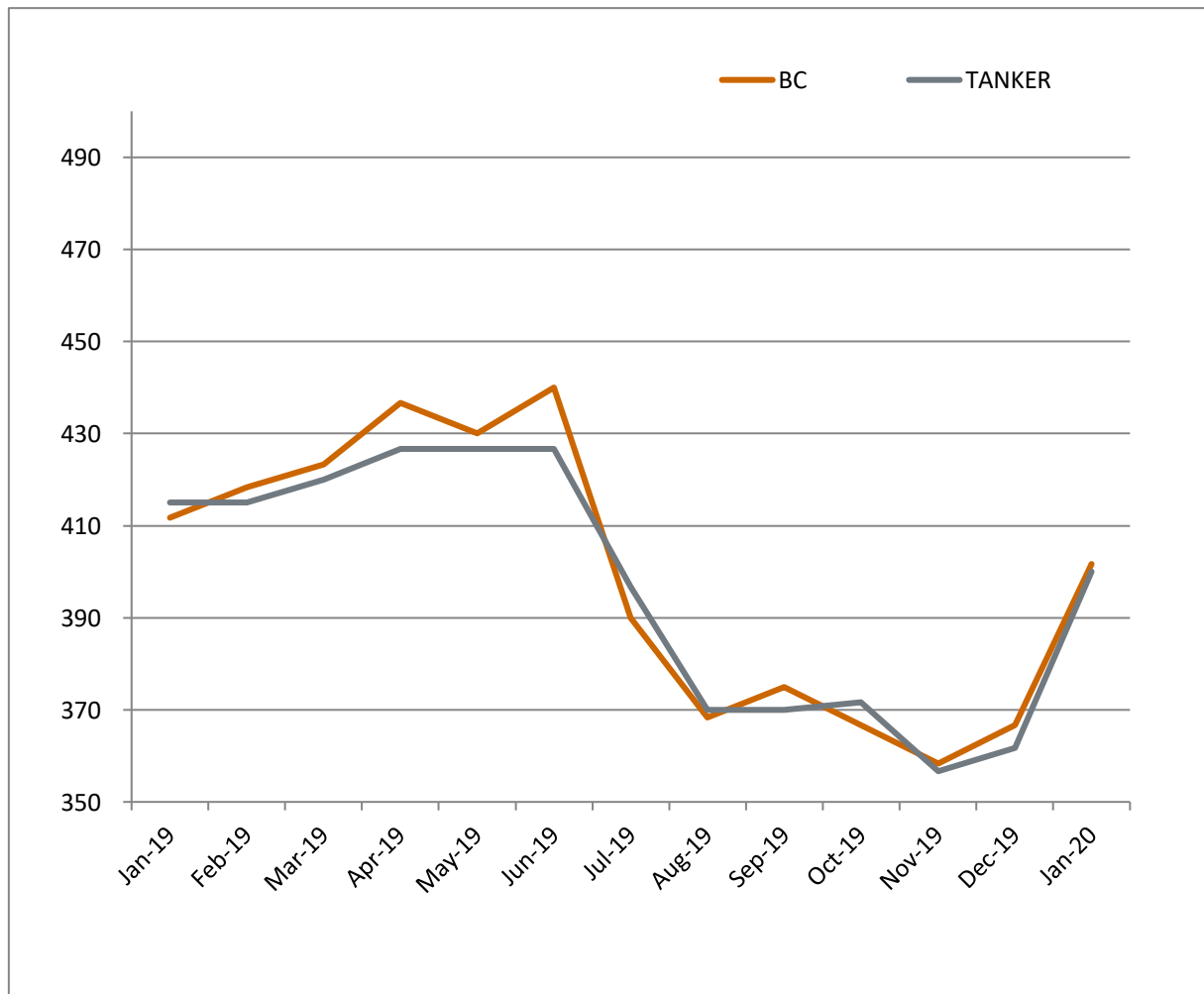


I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8 평균		2019 평균		2020 평균		2019 년 1 월	2020 년 1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432.92	18.5%	396.39	-8.4%	400.00	0.9%	415.00	400.00	10.6%	-3.6%
BC	440.63	18.8%	398.75	-9.5%	401.67	0.7%	411.67	401.67	9.5%	-2.4%

❖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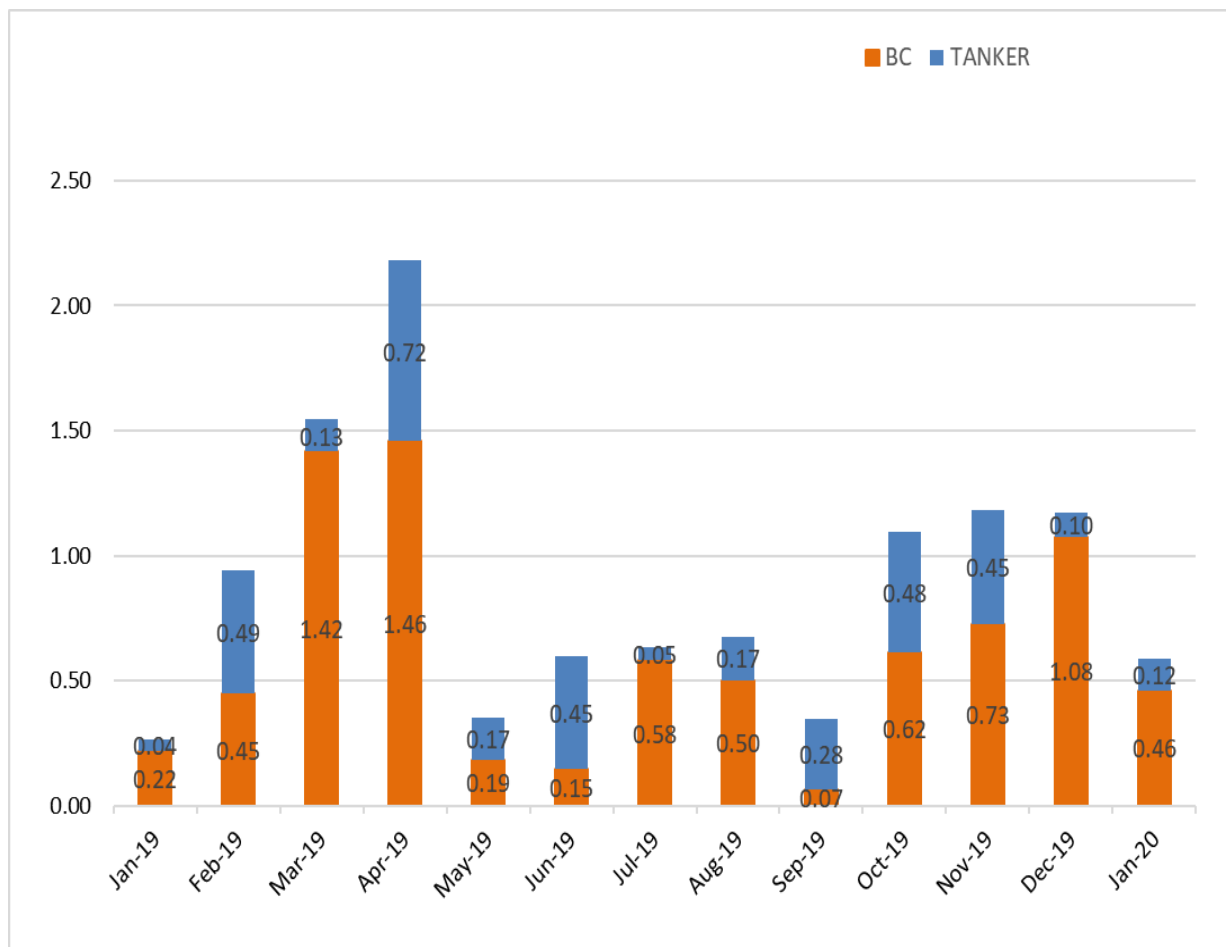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8 년		2019 년 누적			2019 년 1 월		2020 년 1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0.86	195	3.54	17.0%	97	49.7%	0.04	4	0.12	183.3%	6	50.0%
BC	4.20	112	7.45	177.3%	116	103.6%	0.22	5	0.46	110.0%	2	-60.0%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V-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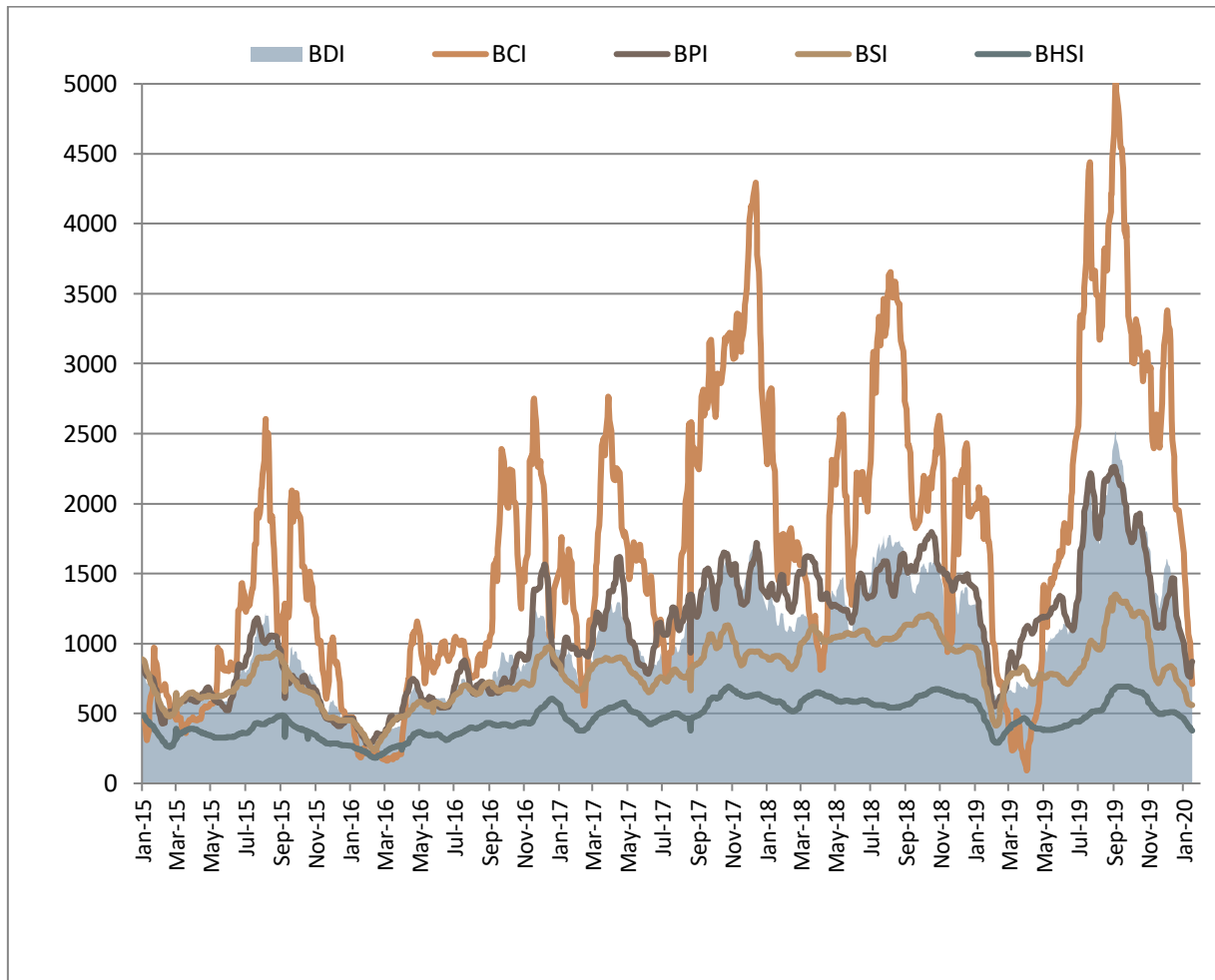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BC	UNIVERSAL GREEN	54,053	10,463	2002	JAPAN	B&W	415	INDIA, HKC Green recycling
BC	UNI HARVEST (woodchip carrier)	46,899	9,483	1991	JAPAN	MITSU	381	BANGLADESH
BC	UNI GLORY (woodchip carrier)	44,679	9,264	1991	JAPAN	SULZ	381	
CONT	APL THAILAND	66,520	24,250	1995	GERMANY	B&W	395	AS IS Singapore, HKC Green recycling
CONT	NEAPOLIS	21,152	7,213	2000	KOREA	B&W	421	AS IS Singapore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20-01-17	2020-01-10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754	774	▼-20.00	2518	290
BCI	712	1066	▼-354.00	5043	92
BPI	870	771	▲99.00	2262	282
BSI	560	570	▼-10.00	1351	243
BHSI	379	408	▼-29.00	692	183





V.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366.00	▼-20.00	298.50	▼-5.00	334.50	▼-12.00
IFO180	379.00	▼-20.00	318.00	▼-9.50	385.00	▼-5.00
MGO	669.00	▼-38.00	549.50	▼-21.50	595.50	▼-44.00
LSMGO	659.00	▼-55.50	550.50	▼-23.50	-	-
VLSFO	655.50	▼-47.50	531.50	▼-28.00	568.50	▼-60.00

❖기준일 : 1 월 17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20-01-17	2020-01-10	CHANGE
미국 달러	1159.60	1160.00	▼-0.40
일본 엔(100)	1052.32	1059.60	▼-7.28
유로	1291.39	1288.47	▲2.92
중국 위안	168.35	167.50	▲0.85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STL NEWS & INFORMATION

[시사상식사전] 싱글래리티 (Singularity)

양적으로 팽창을 하다가 질적인 도약을 하는 특정 시점을 말한다. 인공지능(AI)이 인류의 지능을 초월해 스스로 진화해 가는 기점(기술적 특이점)을 뜻하기도 한다.

이 시점에 다다르면 인공지능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어 내고 사람은 더 이상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이 기술적 특이점이 언젠가 반드시 도래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싱글래리티리안(SINGULARITIRIAN)이라 한다.

대표적인 싱글래리티리안인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은 《특이점이 온다(THE SINGULARITY IS NEAR)》(2005)라는 저서에서 2045년 특이점이 올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관련기사 : 조현준 효성 회장 "싱글래리티 시대, 변화 빠른 기업 돼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새해에는 '숲속의 고객을 보는 기업, 그리고 그 숲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기업'을 만들자"고 2일 밝혔다. 그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숲은 다름아닌 우리의 고객들이 살아가는 터전"이라며 "숲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만 그 생태계 안에서 우리 효성도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AI의 발전으로 싱글래리티(SINGULARITY,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점)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SINGULARITY 시대는 우리 곁에 와 있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업의 개념, 게임의 룰을 통째로 바꾸고 있음을 알아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나무 하나만 봐서는 알 수 없다"면서 "크게 숲을 보는 시야를 가지고 빠른 변화를 알아내고, 선도하는 기업이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제가 고객의 목소리(VOC)를 끊임없이 강조해온 것도 바로 고객이 더 이익을 내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라며 "고객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고객의 목소리를 나침반으로 삼아야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VII. CONTACT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snp@stlkorea.com

sancho@stlkorea.com(Personal)

| RESEARCH

Anna Lee (이혜란 과장)

Manager

Tel. 070-7771-6403

Mob. 010-2258-5561

snp@stlkorea.com

anna@stlkorea.com(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Personal)

Mike Hong (홍창목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Mob.010-4855-8055

snp@stlkorea.com

mikehong@stlkorea.com
(Personal)

| AGENCY OPERATION (오수현 차장 Tel. 070-7771-6402)

| FERROALLOY LOGISTICS (안지영 차장 Tel. 070-7771-6405)

| WAREHOUSE MANAGEMENT (진정식 과장 Tel. 070-7771-6406)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 기업/일반 단체 (이현성 부장 Tel.070-4800-0153)

| 항공 예약 (김영하 실장 Tel.070-4800-0151)

| 패키지/허니문/골프 (김홍모 대리 Tel.070-4800-0150)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이진행 실장 Tel.010-2777-4027)